「비날이는品川駅」을 통해서 본 「雨傘밧은 『요꼬하마』의 埠頭」

정 승 운*
sujeong@chonnam.ac.kr

Contents

1. 들어가며
2. 프롤레타리아 국제연대
3. 사회주의 휴머니즘
4. 프롤레타리아 후속세대 양성
5. 나오며

Abstract

＜日本プロレタリアートの後だて前だて＞は、＜民族エゴイズムのしっぽ＞を引きずっている表現なのか、あるいはプロレタリアートの国際的連帯を意味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の論争が未だに続いている。＜民族エゴイズムのしっぽ＞の見地に立っている見解は'盾'を弾除けの意味として捉えている。

「雨傘さす横浜埠頭」を「雨の降る品川駅」と比較検討して見ると、詩的話者と主人公との関係は異性としての恋人ではなく、プロレタリアート同士の人間的ヒューマニズムの連帯感に基づいていることが分かる。'雨'は日本帝国主義の軍国・資本主義の横暴と天皇制のよって行われている白色テロを象徴している。

聖書に ＜神様はお前の盾である＞とあるように、盾は連帯感の象徴として解釈することができる。「雨傘さす横浜埠頭」における雨傘も、よく ＜俺がお前の傘になってあげよう。＞という表現があるように、横浜埠頭で女主人公のさしている雨傘は、自然の雨風を阻んでくれる唯一の道具である。詩的話者と '異国の小娘'という存在はお互い傘になり合っているのである。林和は、＜日本プロレタリアートの後だて前だて＞における '盾'を、「雨傘さす横浜埠頭」の '傘'にして回答したと言えよう。

"愛する「雨傘さす横浜埠頭」の小娘"に対する愛は、社会主義ヒューマニズムの愛として捉えてよい。「雨の降る品川駅」は、別れていく朝鮮人に、詩的話者の念願を諾しているのに比べて、「雨傘さす横浜埠頭」の話者は、それよりも一歩前進した所を、即ち次世代プロレタリアートの育成を日本人に頼んでいる。紙傘が壊れれば、"愛に飢えた幼年工"にさして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くれ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のである。傘が壊れるということは、日本帝国主義の攻撃を阻む‘盾’を失うこととなり、対応無策で攻撃に露出されるのである。

Key Words : 日帝、雨傘、盾、国際的連帯、社会主義ヒューマニズム、次世代の育成

1. 들어가며

임화(林和)는 1929년 박영희의 후원으로 동경으로 가고, 무산자사(無産者社)에서 활동한다. 9월에는 「雨傘밧은 『요꼬하마』의 埠頭」를 「朝鮮之光」 87호에 싣는다. 같은 해 2월 「개조」(改造)에 발표되었던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의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雨の降る品川駅)」에 응답하여 쓴 시다.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雨の降る品川駅)」은 3개월 후인 5월, 「무산자」(제3권 제2호)에 「비날이는品川駅」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역되어 게재되었다.

그렇다면 「雨傘밧은 『요꼬하마』의 埠頭」는 과연 구체적으로 「비날이는品川駅」에 내용상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이 두 시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

본고는 「雨傘밧은 『요꼬하마』의 埠頭」와 「비날이는品川駅」를 텍스트로하여 시어를 상호 비교하며 면밀하게 읽어나감으로써 이 두 시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시의 이해를 깊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로는 高英子 「中野重治と林和」(『龍鳳論叢』 20, 全南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1991. 12, 191~209쪽), 신은주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와 한국 프로레타리아 문학운동-임화, 이북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日本研究』 12,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研究센터日本研究所, 1997. 12, 187~229쪽), 申銀珠・趙珉淑・満田郁夫・林淑美 「『雨の降る品川駅』のテキストについて、及びそれをめぐる議論についての共同研究(上)・(中)・(下)」(『梨の花通信』, 2001. 4・7・9, 中野重治研究会), 졸고 「나카노 시게하루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재해석(1)-‘따스함’을 중심으로-」(『日本語文學』 12집, 韓國日本語文學會, 2002. 3, 351~374쪽), 졸고 「나카노 시게하루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재해석(2)-‘앞 방패’를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 12집, 韓國日本文化學會, 2002. 2, 195~217쪽), 신은주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와 일본의 천황제－『비 내리는 시나가와 역』과 『반잔의 술』을 중심으로-」(「일본근대문학-연구와 비평」 제4호, 한국일본근대문학회, 2005. 10, 101~121쪽) 등의 뛰어난 연구가 있다.

2. 프롤레타리아 국제연대

「비날이는品川駅」에서의 "일본푸로레아ー트의압짭이요 뒤ㅅ군"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적 연대를 나타낸다. 원시의 "日本プロレタリアートの後だて前だて"를 이와 같이 당시 번역한 것이다. 현대어역하면 "일본프롤레타리아의 뒷방패 앞방패" 정도이다.

그런데 이 시구는 지금까지도 "민족에고이즘의 꼬리"를 물고 있는 표현인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연대의 표현인가가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민족에고이즘의 꼬리"로 보는 견해는 '방패'가 총알받이를 의미한다고 보는 데서 출발한다.

쇼와 천황의 즉위식(1928년 11월 10일)을 앞두고 강제 송환되는「불순한 조선인」(不逞鮮人)의 친구를 비가 내리고 있는 시나가와역(雨の降る品川駅)에서 나카노 시게하루는 배웅했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나 나카노 시게하루는「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에 관하여」(雨の降る品川駅のこと)[1]에서,

> 이것은 극히 단순한 것으로, 특별히 주를 넣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물어 오신 것에 답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 그 작품은 1929년의「개조」(改造) 2월호에 발표되었습니다만, 전년도가 끝날 즈음에 쓴 것이었을 것입니다. 발표 때는「×××기념에 이북만, 김호영에게 보낸다」(×××記念に李北満, 金浩永におくる)라는「부제와 같은 것이 있었」(副題ようのものがあった)던 듯 합니다만,「×××」는「어대전」(御大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대전이라는 것은 천황즉위식을 가리킵니다. 이 즉위식은 1928년 11월 10일에 있고, 그 앞에 많은 조선인이 체포되어 강제적으로 조선에 보내졌습니다. 나도 혼고 혼후지 서(本郷本富士署)에 29일간 유치되었습니다.「부제」(副題)의 이북만은 죽었습니다. 김호영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근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26, 7세 되는 연령이었

1) 『季刊三千里』(2, 1975・5, p.14)

습니다. 작품 속에 신, 김, 이, 여자의 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직접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제」의 이, 김도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송환 - 「송환」(送還)의 「환」(還)은 이 때 본질적으로 부당한 것입니다만, 당하는 조선인 총체를, 개개인의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염, 안경, 곱추등」(髯, 眼鏡, 猫背) 이 말은, 시적 표현으로서 조금 차원이 낮은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만, 당시의 증오, 거의 생리적이었던 그것에 관계하고 있을 것입니다. 곱추등은 나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옛날에는 패전까지 천황이 관병식에 나와서, 그 때 천황 혼자만이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다른 장군들은 한 사람도 백마를 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 천황깃발을 흩날리면서 그 사진이 신문에 나옵니다. 그 때 천황은 비스듬한 앞쪽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심한 곱추등이 감춰지는 각도에서만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싫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증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저차원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의 절에 "일본프롤레타리아의 뒷방패 앞방패"(日本プロレタリアートのうしろ盾まえ盾)라는 행이 있습니다. 여기는 「곱추등」(猫背)과는 다릅니다만, 민족 에고이즘의 꼬리와 같은 것을 끌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시나가와역의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나로서는 이 작품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선 이외의 외국인에게도 알기 쉬운 듯 하여, 언젠가 어느 미국인이 당신의 소설류는 이곳저곳 알기 어려운 곳이 많지만,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은 좋다, 어쩌면 나는 좋아한다, 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물론 일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써 두겠습니다.

/ 1975년 3월 14일

고 쓰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방패(まえ盾)'가 조선인이 일본인의 '총알받이'(弾丸よけ)가 되고, 나쁘게 이용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민족에고이즘'(民族エゴイズム)의 표현에 가까운 것이라고 작자 본인까지도 인정한 듯한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의 "한일 연대의 질에 관계되는 문제로, 「일본프롤레타리아의 뒷방패 앞방패」라는 표현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연대가 아니고, 조선인을 둘러싸고 이용해 온 일본의 혁명운동의 결함과 같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2]고 하는 비판이라든가, 하야시 고지(林浩治)에 의한 "여기에, 조선을

「일본프롤레타리아의 뒷방패 앞방패(日本プロレタリアートのうしろ盾まえ盾)」로 해 버린 나카노 시게하루와, 조선인 가운데에 들어가 그 민족문화에 이해를 표하고, 잃어 가는 문화를 스스로의 아픔으로 한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와의 차이가 있었다."[3]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나카노 시게하루는 왜 이러한 문장을 쓴 것일까? 윤학준의 "물음에 답하여 조금 써 주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음(おたずね)'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물음인 것일까?

윤학준은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과 그 때」(雨の降る品川駅とそのころ)가 쓰여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1975년의 시작 무렵이었을 것이다. 나도 그 편집일원이었던 「季刊三千里」가 「조선과 1975년」(朝鮮と昭和五十年)이라고 하는 특집을 짜게 되었다. 그리고 시나가와역을 재록하게 되어, 나카노(中野)씨로부터 코멘트를 받도록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데, 당시 나카노(中野)씨는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고, 전집의 편찬 작업이 시작되어서, 원고는 도저히 받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거기서 담화를 녹음하려고 하게 되어 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테이프 레코더를 둘러메고 내가 가게 되었다. 그 때 김달수씨도 「오랫동안 만나고 있지 않으니까 나도 동행하겠다.」고 하여 두 사람이 찾아가게 되었다. 나카노(中野)씨는 고타츠(炬) 속에 웅크리고 앉아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던 듯했다. 의외로 건강해서 안심했다. 담화를 녹음한 후에 양주 등도 대접받았다. 수일 후 테잎을 원고로 바꿔서 말미에 넣은 것을 들고 다시 방문했다. 나카노(中野)씨의 이야기는 그 테잎을 원고로 하면 그대로 문장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고심했던 것이었다. 원고를 둘러 본 나카노(中野)씨는 「상당히 잘 정리가 되었군요.」라 말하고, 조금 교정을 할 테니까 놔두고 가라고 하셨다. / 그런데 돌려받은 원고를 보고 나는 놀랐다. 전혀 다른 직필의 원고였다. 내가 놀란 것은, "어영부영할 수 없는 엄격한 사람"(お茶をにごすことのできないきびしい人)이라는 것이 그 하나였는데, 그것보다도 원고의 내용이었다. / 나는 앞서 「나카노(中野) 자신의 자기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운운」이라고 서술했는데, 이 짧은 원고는 그야말로 나카노(中野)의 자기비판이었다. 「마지막 절에 일본프롤레타리아의 뒷방패 앞방패라는 행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곱추등과는 다르지만, 민족 에고이즘의 꼬리와 같은 것을 끌고 있는 느낌을 떨칠 수

2) 「『雨の降る品川駅』の事実しらべ」(水野直樹, 『季刊三千里』, 21号, 1980・2, 春, p.98)
3) 「村山知義の朝鮮行きについてなど―中野重治の疑問に則して」(『新日本文学』 50巻 5号, 1995・6, p.57)

없습니다.」(「계간삼천리」 제2호, 1975년 5월). 나는 이것을 읽고 이 친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콧구멍이 커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4]

이 인용문의 바로 앞에서 윤학준은, “나는 나카노(中野)를 좋아한다. 참을 수 없을 정도다. 그렇지만, 딱 하나만은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조선인이 일본 프롤레타리아의 뒷방패 앞방패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 말한 우인(友人)의 말을 서술하고 있다. 그 뒤, “나는 이것을 읽고 이 친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콧구멍이 커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라는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담화 중에 이 친구의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어떤지는 쓰여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물음에 답해서 조금 쓰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윤학준의 ‘물음’인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윤학준의 ‘물음’이 어떤 내용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나카노 시게하루의 대답으로부터 추측해서 보면, 다름 아니라 “일본프롤레타리아의 뒷방패 앞방패”에 관한 것일 것이다. 나카노 시게하루의 원고(대답)를 받아든 윤학준은, “이것을 읽고 이 우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콧구멍이 커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라는 것이었다. 즉, “일본프롤레타리아의 뒷방패 앞방패”에 대해서, “민족 에고이즘의 꼬리와 같은 것을 끌고 있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카노 시게하루가 말하게 되었던 것은, 나카노 시게하루 자신의 내부에서 자연히 발생하여 나온 것이지만, 윤학준의 ‘방문’에 의한 자극이 하나 있었다는 경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雨傘밧은 『요꼬하마』의 埠頭」[5]를 검토해 보자.

---

4) 「中野重治の自己批判—朝鮮への姿勢について(中野重治—人とその全仕事 <特集>」(『新日本文学』, 34巻 12号, 1979・12, p.150)

5) 大村益夫編訳 『季刊三千里』, 1998년 가을 제43호(pp.229~234)에 실린 「<對譯>近代朝鮮詩選(10) 雨傘さす横浜埠頭」의 노작(勞作)을 참고로 싣는다.

港の娘よ！ 異国の妹よ！ /ドックを走り来るな ドックは雨にぬれ/わが胸は別れゆく悲しみと追われゆく怒りに火と燃える/おお 愛する港横浜の妹よ！/ドックを走り来るな らんかんは雨にぬれている//「そえでも天気がよい日だったら……」/いやいや それはせんのないこと おまえにはかわいそうなことば/ おまえの国は雨が降り このドックが流されようと/あわれなおまえが泣きに泣き 細いのどが張り裂けようと/異国の反逆青年たるおれを留めおくはしないだろう/あわれな港の娘よ——泣くな//追放の標しを背にし どでかいこの埠頭を出てゆくおれとても 知らないのではない/おまえがいまこの足で帰っていけば/勇敢な男たちの笑いと 底知れぬ情熱の中で その日その日を送ってきた小さな家が/いまは土足で踏み荒された跡のほか 何物もおまえを迎えるものとてないことを/おれは誰よりもよく知っている//しかし 港の娘よ！ おまえも知らなくはない

임화가 과연「비날이는品川駅」이 "민족에고이즘의 꼬리"를 물고 있다고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다.

> 港口의 계집애야! 異國의 계집애야!/『독크』를 쒸어오지마러라『독크』는 비에저젓고/내가슴은 써나가는 서러움과 내어쏫기는분함에/불이타는데

"港口의 계집애야! 異國의 계집애야!"라고 낮춰 부르는 것은 친근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적 화자와 여주인공의 사이가 연인관계라고 볼 수는

だろう/いま「鳥かご」の中に寝るその人たちが になおまえの国の愛の中に生きてきたのでもなく/いとしいおまえの心の中に生きてきたのでもなかった//だが/おれはおまえのために おまえはおれのために/そして あの人たちはおまえのために おまえはあの人たちのために/なぜに命を誓ったのか/なぜに雪降る夜をいくたび街角で明かしたのか//そこには何の理由もなく/おれたちは何の因縁もなかった/ましておまえは異国の娘 おれは植民地の男/しかし——ただ一つの理由は/おまえとおれ——おれたちは同じく働く兄弟であったからだ/そしておれたちはただ一つの仕事のために/二つの異なる国の命が 同じ釜の飯を食ったのであり/おまえとおれは愛にいきたのだった//おお 愛する横浜の娘よ/雨は海の上に降り 波は風を受ける/おれは今この土地に残した物をみな置いて父母の国へ帰ろうと/太平洋の上にいる/海には長い翼のカモメの姿もきょうはなく/わが胸に飛びかっていた横浜のおまえも きょうからは消え失せる//だが 横浜の鳥よ——/おまえは淋しがってはならない。風が吹くではないか/一本しかないおまえのカラカサが壊れたらどうする/早く帰れ/今はおまえのゲタの音も 雨と波とにかき消された/帰るのだ さあ帰るのだ/おれは追われて行くけれども あの若く勇敢な奴らは/汗にまみれた服を着て 鉄窓のもとにじっとすわっているわけがない/おまえがかよう工場には 母や姉が恋しくて泣く北陸の幼年工がいるではないか/おまえはかれらの着物を洗わねばならず/かれら幼い者たちをおまえの胸に抱きしめてやらねばならないではないか——/加代よ！ 加代よ おまえは帰らねばならぬ/すでにサイレンは三度も鳴り/黒い服は おれの手を何度かひっぱった/もう行かねばならぬ おまえもおれも/異国の娘よ！/涙を流すな/街をうねり行くデモの中におれがいず あいつたちが欠けたとて——/淋しく思うな/おまえが工場を出た時 電柱のかげで待つおれがいなくなったとて——/そこにはまた若い労働者たちの波が おまえの胸を熱くしてくれるだろうし/愛に飢えた幼年工の手がおまえを待っていることだろう——/そしてまた 若い人たちの演説は/働く人たちの頭上に火のように降り注ぐだろう//帰れ！ 早く帰れ/雨はドックに降り 風はデッキにうちあたる/傘がこわれるではないか——/きょう追われゆく異国の青年を送ってくれたその傘で あすは あすは出てくるあいつたちを迎えた/ゲタの音高く 京浜街道を闊歩せなばならぬではないか/おお さらば愛する港の娘よ/おれを送る悲しみ/愛する男と別れる小さな思いに留まるおまえではない/おまえが愛するおれは この土地から追われるではないか/鳥かごのあいつらはそれも知らずにいるではないか。この思い この怒り この事実もて/ハトのようなおまえの胸を真赤に染めよ/そして白いおまえの肌が熱さに耐えられぬ時/それをそのまま あの顔に あの頭に 思いきり かつぎあげぶちまかせ//そうすれば その時ならば 今は行くおれも すでに釜山(プサン)・東京を経て 友とともに横浜に来ている時だ/おれの胸にうずめて泣いてみよ 笑ってもみよ/港のわが娘よ！/ドックを走り来るな/雨は軟らかなおまえの背に降り風はおまえの傘に吹いている

없다. 임화는 「朝鮮之光」1929년 2월호의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프롤레타리아 동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시적화자와 누이동생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렇게 위하시던 오빠의 거북 무늬 질화로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朝鮮之光」 1929년 1월호 「네거리의 순이」에서도

> 네가 지금 간다면, 어디를 간단 말이냐?/그러면, 내 사랑하는 젊은 동무,/너, 내 사랑하는 오직 하나뿐인 누이 동생 순이,/너의 사랑하는 그 귀중한 사내,/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그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어디서 온단 말이냐?

라 하여, 시적화자와 여주인공은 이성적 연인 사이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로서의 인간적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오 사랑하는 港口 『요꼬하마』의 계집애야!/『독크』를 뛰어오지마러라 란간은 비에저저잇다

"란간은 비에저저잇다"에서 '비'는 일제의 군국・자본주의의 횡포를 상징한다. '비'에 젖은 독크의 난간에 미끄러져 다칠까 염려하는 것은 일제의 착취에 신음하는 현실을 비유하고 있다.

「비날이는品川駅」에서는 비에 젖은 시나가와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그대들은 비오는品川駅에서 차에 오ㄹ 으는구나(중략)/바다는비에저저서 어두어가는저녁에 파도성을놉히고/비닭이는비에저저서 연기를헷치고 창고집웅에서날너 날인다/그대들은비에저저서 그대들을쏫처내는일본의××을생각한다/그대들은비에저々서 그의머리털 그의좁은이마 그의 안경 그의 수염 그의 보기실은꼬ㅂ새등줄기를 눈압헤 글여본다//비는줄々날이는데 새파란 시그낼 은오ㄹ너간다/비는줄々날이는데 그대들의검은눈동자가번적인다

"그대들을쏫처내는일본의××"에서의 복자는 천황을 말한다. '비'는 천황제의 핵심인 일본 천황의 백색테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남아도 天氣가 조흔날이엇드라면?』……/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所用업는 너만에 불상한말이다./네의나라는 비가와서 이『독크』가써나가거나/불상한네가 울고울어서 좁드란목이미여지거나/異國의 반역靑年인 나를 머믈너두지안으리라/불상한港口의계집애야-울지도말어라

"불상한港口의계집애야-울지도말어라"는 나카노 시게하루의「노래하지 마라(歌うな)」에서의

너는 노래하지 마라/너는 빨간 꽃과 잠자리의 날개를 노래하지 마라//바람의 속삭임과 여자의 머리카락의 냄새를/노래하지 마라/모든 허약한 것/모든 확실치 않은 것/모든 울적한 것을 털어 버려라/모든 風情을 배척해라/오로지 정직한 곳을/시장끼를 달래는 곳을/가슴 언저리를 치밀고 올라오는 한계를 노래해라/두들겨 맞아 튕겨져 나오는 노래를/치욕의 밑바닥에서 용기를 펴 올리는 노래를/그러한 노래들을/목청을 부풀려 엄격한 음률로 노래 불러라/그러한 노래들을/지나가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라[6]

와 그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빨간 꽃과 잠자리의 날개"와 "바람의 속삭임과 여자의 머리카락의 냄새를/노래하지 마라/모든 허약한 것/모든 확실치 않은 것/모든 울적한 것"을 노래하지 말고, "오로지 정직한 곳을/시장끼를 달래는 곳을/가슴 언저리를 치밀고 올라오는 한계"를 노래하라고 하고 있다. 착취당하고 폭압을 받는 이들을 달래고 위로하는 것을 노래하라는 것은 "불상한港口의계집애야-울지도말어라"에서의 분노와 동일선상에 있다.

追放이란 標를 등에다지고 크나큰이埠頭를 나오는 네의산아희도모르지는안는다/네가지금 이길노도라가면/勇敢한산아희들의우슴과 아지못할情熱속에서그날마다를보내이든 조그만그집이/이제는 구두발이들어나간 흙자죽박게는 아무것도너를마즐것이

6) お前は歌ふな/お前は赤まゝの花やとんぼの羽根を歌ふな/風のさゝやきや女の髪の毛の匂ひを歌ふな//すべてのひよわなもの/すべてのうそうそとしたもの/すべての物憂(ものう)げなものを撥(はじ)き去れ/すべての風情を擯斥(ひんせき)せよ/もつばら正直のところを/腹の足しになるところを/胸先きを突き上げて來るぎりぎりのところを歌へ/たゝかれることによつて彈(はじ)ねかへる歌を/恥辱の底から勇氣をくみ來る歌を/それらの歌々を/咽喉(のど)をふくらまして嚴しい韻律に歌ひ上げよ/それらの歌々を/行く行く人々の胸郭にたゝきこめ

업는것을/나는 누구보다도잘알고 생각하고잇다

"追放이란 標를 등에다지고 크나큰이埠頭를 나오는 네의산아희"는 시적화자다. "勇敢한산아희들의우슴과 아지못할情熱"은「우리 오빠와 화로」에서의

저는 용감한 이 나라 청년인 우리 오빠와 핏줄을 같이 한 계집애이고/영남이도 오빠와 능 칭찬하던 쇠 같은 거북 화로를 사온 오빠의 동생이 아니에요/그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갔습니다/눈물 나는 우리 오빠 동무의 소식을 전해 주고 갔어요/사랑스런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세상에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용감한 청년'과「비날이는品川駅」의 "조선의산아이요 게집아인그대를/머리끗쪄끗까지 꾸ㅅ々한동무"와는 서로 호응하고 있다.

성서를 보면「아브라함이여. 두려워 말라. / 나는 너의 방패이다. / 네가 받는 보답은 대단히 크다.」[7]라 하여 하나님은 너의 방패라고 하고 있듯이 방패는 연대감의 상징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雨傘밧은『요꼬하마』의 埠頭」의 우산도 흔희 "내가 너의 우산이 되리라."라는 말이 있듯이, 부두에서 우산은 자연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유일무이한 도구이다. 시적화자와 '異國의 계집애'는 서로의 우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임화는 "일본프롤레타리아의 뒷방패 앞방패"의 '방패'를 제목에서 보이는「雨傘밧은『요꼬하마』의 埠頭」의 '우산'으로 응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임화가「비날이는品川駅」에서 민족에고이즘을 느꼈다면,「雨傘밧은『요꼬하마』의 埠頭」에서 마찬가지로 민족에고이즘의 흔적을 남기며 응답했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 시에서는 그 티끌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7)「創世記15・1」(『聖書』新改訳, 日本聖書刊行会, 1994・4・20, 2版8刷)

3. 사회주의 휴머니즘

> 그러나 港口의 계집애야! - 너 그르진안으리라/지금은「새장속」에자는 그사람들이다 - 네의나라의사랑속에사랏든것도안이엇스며/귀여운네의 마음속에사랏든것도안이엇섯다[8]

새장 속은 좁은 집을 뜻하고 군국자본주의에 착취당하며 기거하는 장소 또는 감옥을 말한다. 새장 속에 모여 있는 것은 "네의나라의사랑속에사랏든것도안이엇스며 귀여운네의 마음속에사랏든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국가의 사랑을 받아서 새장 속에 온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랑을 받아 새장 속으로 온 것도 아니라, 군국자본주의의 폭압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럿치만 - /그리고 그사람들은 너를爲하고너는 그사람들을爲하야/엇제서 목숨을 맹서하엿스며/엇제서 눈오는밤을 멧번이나街里에새엇든가

군국・자본주의의 폭압에 항거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끼리 서로를 위하고 목숨을 맹세했다는 것이다.

> 거긔에는 아모싸닭도업섯스며/우리는 아모因緣도업섯다/덕우나 너는異國의 계집애나는植民地의산아희/그러나 - 오즉한가지 理由는/너와나 - 우리들은 한낫勞動하는兄弟이엇든째문이다/그리하야 우리는 다만 한일을爲하야/두개다른나라의목숨이 한가지밥을먹엇든것이며/너와나는 사랑에사라왓든 것이다

異國의 계집애요 港口의 계집애인 가요(加代)는 勞動하는 兄弟로서의 관계이다. '너와나는' 이성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사랑에사라왓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오오 사랑하는「요꼬하마」의 계집애야/비는바다우에나리며 물결은바람에이는데/나는 지금 이짱에남은것을다 두고/太平洋바다우에 떠서잇다/바다에는 긴날개의갈매기

8) 인용문의 띄어쓰기 등의 철자법은 당시의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하 같음.

도 올은볼수가없스며

비바람은 군국・자본・제국주의의 폭압을 말하고, '올은'은 오늘을 말한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비날이는品川駅」에서는 "비닭이는비에저저서 연기를헷치고 창고집웅에서날너 날인다(鳩は雨に濡れて煙のなかを車庫の屋根から舞ひ下りる)"고 하고 있다. 이미 태평양 바다 위에 떠서 떠나가고 있는 시적화자는 그나마도 "바다에는 긴날개의갈매기도 올은볼수가없스며"라 하여 비둘기마저 볼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을 강렬하게 하고 있다.

"사랑하는 「요꼬하마」의 계집애"에서의 사랑은 사회주의 휴머니즘이다. 사회주의의 이상은 부르조아의 착취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산다는 것을 말한다. 휴머니즘은 인류 역사상 시대 상황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해 왔다. 중세의 신본주의(신 중심 세계관)에 대항해 나온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인간 중심 세계관)가 그 하나이고, 근대의 자본주의에 대항해 생긴 사회주의 휴머니즘도 그 하나이다.

4. 프롤레타리아 후속세대 양성

「비날이는品川駅」에서는

> 가거든 그짝々하고듯터운 번질ㄴ한얼음장을 두듸ㄹ여깨ㅅ처라/오래동안갓치엿든물로 문방한홍수를지여라/그리고 쏘다시/해혀ㅂ을건넛뒤여닥쳐오너라/神戸 名古屋을지나 동경에달여들어/그의신변에육박하고 그의면전에나타나/×를사로×어 그의×살을움켜잡고/그의×멱바로거긔에다 낫×을견우고/만신의쒸는피에/쯔거운복×의환희소ㄱ에서/울어라! 우서라!

라 하여, 이별하는 조선인 동지에게 시적화자의 염원을 맡기고 있는데 비해, 「雨傘밧은『요꼬하마』의 埠頭」의 화자는 그 보다 한 단계를 더 생각하고 있다. 즉 다음 세대의 프롤레타리아 양성을 일본인 동지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요꼬하마」의 새야 - /너는쓸々하여서는아니된다 바람이불지를안느냐/한아

뿐인 너의조희우산이 부서지면엇저느냐/어서 드러가거라/인제는 네의『게다』소리도 빗소리 파도ㅅ소리 애뜻치 사라젓다/가보아라 가보아라/내야 쏫기어나가지만은 그젊은勇敢한녀석들은짬에저즌옷을입고 쇠창살밋헤 안저잇지를 안을게며/네가잇는工場엔 어머니누나가 그리워우는北陸의幼年工이 잇지안으냐/ 너는 그녀석들의옷을빠러야하고/ 너는 그어린것들을 네가슴에안어주어야하지를안켓느냐-/『가요』야!『가요』야 너는 드러가야한다/벌서『싸이렌』은 세번이나울고/검정옷은 네손을 멧번이나 잡어다녓다/인제는가야한다 너도가야하고 나도가야한다

'「요꼬하마」의 새'는 '異國의 계집애'(일본인 여성)인 '가요(加代, 내지는 香代, 嘉代, 佳代)'를 말한다. '조희'는 충남과 경남 지방의 사투리로 종이를 뜻한다. '北陸의幼年工'은「우리 오빠의 화로」에서의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닐(пИОНёр)'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이"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의 프롤레타리아를 가리킨다. '피오닐(пИОНёр)'은 영어의 pioneer(개척자)에 해당하는 러시아말로 공산소년단원(9~14세)을 일컫는다.

異國의 계집애야!/눈물은 흘리지말어라/街里를흘너가는『데모』속에 내가업고 그녀석들이 빠젓다고-/섭섭해하지도마러라/네가工場을나왓슬때 電柱뒤에기다리든 내가업다고-/거기엔 쏘다시젊은勞動者들의 물결도 네마음을 굿세게할 것이잇슬것이며/사랑의 주린幼年工들의 손이너를기다릴 것이다-

종이우산이 찢어지면 "사랑의 주린幼年工"에게 쐬워줄 수가 없게 된다. 우산이 찢어진다는 것은 일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공격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젊은사람들의 입으로하는 演說은 勞動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불갓치쏘다질것이다.//드러가거라! 어서 드러가거라/비는『독크』에나리우고 바람은『덱기』에 부듸친다/雨傘이부서진다-/오늘-쏫겨나는異國의靑年을 보내주든그雨傘으로來日은來日은 나오는그녀석들을마주러/『게다』소리놉게 京濱街道를 거러야하지안켓느냐

여기서도 "雨傘이부서진다"면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유일한 도구인 종이우산이 찢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來日은來日은 나오는그녀석들" 즉 후속세대의 프

롤레타리아를 위하여 미래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종이우산이 찢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 오오 그립은사랑하는 港口의 계집애야/너는 그냥 나를떠내보내는 스러움/사랑하는 산아희를 離別하는 작은생각에 주저안질네가아니다/네 사랑하는나는 이땅에서쫏겨나지를안는가/그녀석들은 그것도 모르고 갓처잇지를안은가이생각으로 이憤한事實로/비달기갓흔 네가슴에발갓께물들어라/그리하야 하얀 네살이 쯔거서못견딜때/그것을 그대로 그얼골에다 그대가리에다 마음것 매다 처버리어라

사랑하는 산아희는 연인으로서의 사랑이 아님을 전술하였다. “離別하는 작은생각에 주저안”져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녀석” 즉 후속 프롤레타리아 세대인 幼少年工들을 위함인 것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새, 비둘기는 가요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 비둘기 같은 가슴이 벌겋게 된다는 것은 공산주의 상징이고, 분노의 극치를 나타낸다. “그대가리”는 천황제하 일본제국주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면 그때면 지금은 가는나도 벌서 釜山, 東京을것처동모와갓치 『요꼬하마』를왓슬때다/그리하야 오래동안 서러읍든생각 憤한생각에/疲困한 네귀여운머리를/내가슴에파뭇고 울어도보아라 우서도보아라/港口의 내의계집애야!/그만 『독크』를 쒸어오지마러라/비는 연한네등에나리우고 바람은네雨傘에불고잇다.//=끗=

「비날이는 品川駅」에서는 마지막에 “그리고 또다시/해혀ㅂ을건너쒸여닥쳐오너라/神戸 名古屋을지나 동경에달여들어/그의신변에육박하고 그의면전에나타나/×를사로×어 그의×살을움켜잡고/그의×멱바로거긔에다 낫×을견우고/만신의쒸는피에/쯔거운복×의환희소ㄱ에서/울어라! 우서라!”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비날이는 品川駅」에서의 “그의신변에육박하고 그의면전에나타나/×를사로×어 그의×살을움켜잡고/그의×멱바로거긔에다 낫×을견우고”는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雨傘밧은 『요꼬하마』의 埠頭」에서의 “그것을 그대로 그얼골에다 그대가리에다 마음것 매다 처버리어라”는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임화는 나카노 시게하루에 응답한 것을 고찰할 수 있다.

참고로 이 부분의 복자에 관해서는 2001년 4월, 신은주・조민숙・미쓰타 이쿠오

(満田郁夫)・린 슈쿠미(林淑美)에 의한「『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텍스트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논의에 대한 공동연구 (상)」(『배꽃(梨の花)통신』, 나카노 시게하루 연구회)이라는 뛰어난 선행 연구가 있다. 졸고「나카노 시게하루『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재해석(1)-'따스함'을 중심으로-」(『日本語文學』 12집, 韓國日本語文學會, 2002. 3, 351-374쪽)는 지면 관계로 생략하기로 한다.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彼の身辺に近づき/彼の面前にあらはれ/彼を捕へ/彼の顎を突き上げて保ち/彼の胸元に刃物を突き刺し/反り血を浴びて/溫もりある復讐の歓喜のなかに泣き笑へ"[9]라고 축어역(逐語訳)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초출의 원시형(原詩形)으로써 믿어져 왔다. 이들을 둘러싼 사실에 관하여, 공동연구와 졸고와의 견해의 차이를 설명해가고자 한다.

「공동연구 (상)」에서는 "1 텍스트에 대하여(미쓰다 이쿠오, 満田郁夫)/A「개조」1929년 2월호에 게재된 형태/B『나카노 시게하루 시집』(나프 출판부판)에서의 형태/C 나우카(ナウカ)사판, 고야마(小山)서방판, 제2차 전집판에서의 형태/D 미즈노 나오키에 의한「무산자」소수 조선어역의 발견/E 마쓰시타 유타카(松下裕)에 의한 복원 작업/F 나카노 시게하루의 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兌)에의 편지/G 조선어역「비날이는 사나가와역」의 시역//2 나카노 시게하루와 이북만・김두용(신은주)//3 새로운 판이 명백히 하는 것(林淑美)"라는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츠다 이쿠오는 "「개조」1929년 2월호에 게재된 형태"와 "『나카노 시게하루 시집』(나프출판부판)에서의 형태", 그리고, "나우카사판, 고야마서방판, 제2차 전집판에서의 형태"의 본문 이동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난 후, "D 미즈노 나오키에 의한「무산자」소수(所収) 조선어역의 발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것을 47년 후인 1976년 (나카노 시게하루가 죽기 3년 전)에", "조선어를 막 배우기 시작했던 그는 사전과 격투하며 그 재번역을 만들고, 스승인 마쓰오 다카요시를 통해서 나카노 시게하루에 전했다. / 나카노 일기 1976년 11월 23일에는,「교토(京都)의 마쓰오군(松尾君) 오다. 조선어역의 건, 그 외」. 마쓰오『나카노 시게하루 방문기』에는「나카노씨가 놀라 기뻐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다. / 미즈노가 이 때 마쓰오에게 맡긴 것은 400자 원고지 6매"였다고 한 후, 그 때의「조선

9) 水野直樹(1980, 春)「『雨の降る品川駅』の事実調べ」(『季刊三千里』, p.101)

어로부터의 재일본어역」, 즉 미즈노 나오키가 제출한 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30 그의 신변에 육박하고 그의 면전에 나타나 / 31 ×[彼?]を×[捕へ?]어/彼の×[胸倉?]살をわしづかみにし/32 彼の(1)×[刃?]먹すぐそこに鎌の×[讐?]を命中させ/33 滿身のわきあがる血に [滿身にとび散る血に] /34 溫かい復×の歡喜の中に/35 泣け！ 笑へ！/註(1)伏字に当てはまるやうな朝鮮語が思ひ浮かばず。주먹＝こぶし？

이것은 이제까지 제시된 적이 없었던 신 자료이다. 1976년 11월 23일, 마쓰오 다카요시가 나카노 시게하루에게 미즈노 나오키에 재일본어역을 보인 원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환기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당시 미즈노 나오키가 "낫×을견우고/만신의쒸는피에"를 "鎌の×[刃?]を命中させ/滿身のわきあがる血に [滿身にとび散る血に]"로, 즉 두 가지의 재일본어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공동연구는 명백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공동연구는 오역에서 미즈노 나오키의 관련을 부정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동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신자료가 없었다면, 마쓰시타 유타카만의 책임이 되었던 것이다. 결론에서 필자도 마쓰시타 유타카의 오역을 놓치고 있었는데, 미즈노 나오키만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은,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사실조사」[10]에의 오독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사실(fact)'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오역의 책임이 누군가 하는 '판단'이 중요한 것은 아닌것이다. 객관적인 '사실'과 개인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여기서 "32 彼の(1)×[刃?]먹すぐそこに鎌の×[讐?]を命中させ"는 '찌르고'와 같은 의미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고(2) 논을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33 만신의 솟아오르는 피에 [만신에 튀기는 피에] "라고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만신의 솟아오르는 피에"의 경우는 뭔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연상케 한다. "만신에 튀기는 피에"는 앞서의 '返り血'와 같은 의미이다. 미츠다 이쿠오가 "세세하게는 나중에 보겠는데, 미즈노는 몇 갠가의 문자를 잘못 읽고 있는 듯 하다. (중략) 「명중시켜」로 미즈노가 번역한 것은 기본형 견우다 라는 동사, 이것은 「狙ふ, 擬する, 들이대다」라는 의미"인

10) 『季刊三千里』(第21号, 春, 1980, 2)

것이고, '명중시켜'는 '견우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찌르고'와 같은 의미가 되므로 이것은 잘못이다.

미츠다 이쿠오는

> 33행 째의 [ ]안의「만신에 튀기는 피에」는 여기의 동사를 튀다「撥ねる, とばす」로 읽었기 때문인데, 동사는 뛰다(「奔(はし)る」)이므로 미즈노가 최초로 쓴「만신의 솟아오르는 피에」의 쪽이 올바르다. 주 (2)는 미즈노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11]

고 쓰면서, "주 (2)는 미즈노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누가 쓴 것이라고 되묻고 싶다. 언뜻, 마쓰시타 유타카가 쓴 듯한 문맥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p.586의 상단에 가면, 미즈노 나오키가 병기(併記)했다고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 뒤 문장이 모순되는 견해인 것이다.

> 「개조」판의 제36행 째에 관하여서는 미즈노에게도 잘못이 있고 혼동도 있었다. 제37행 째를 미즈노는 올바르게「만신의 솟아오르는 피에」로 번역했다. 아주 닮아 있어서, 일본인에게는 구별할 수도 잘 변별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명백히 발음도 의미도 다른 또 하나의 번역을 변기하고 있는데, 중심적인 번역은「만신의 솟아오르는 피에」쪽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미즈노는「개조」판의 복자 부분의 복원 안으로서「솟아오르는 피에」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마쓰시타가, 어떠한 절차였던지, 미즈노가 [ ]안에 넣은 부차적인 번역만을 채용하고, 그것을 그 상상력으로 왜곡시켜「피를 뒤집어쓰고」라고 한 것이다.

"또 하나의 번역을 변기하고 있다"라던가 "미즈노가 [ ]안에 넣었다"던가 하여, 미즈노역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의 번역 중 어째서 "중심적인 번역은「만신의 솟아오르는 피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여하튼 미즈노 나오키의 두 가지의 번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쓰시타 유타카는 미즈노 나오키의 두 가지의 번역을 보았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솟아오르는' 것인지, 결국 '분노'인지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인

11) 共同研究(上), p.585, 上段

지, 이 논문에는 끝까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솟아오르는 피'에도 "32 彼の×[刃?]を命中させ(1)/33 만신의 솟아오르는 피에"에서 '명중시켜'라는 표현은 '천황'을 죽이는 살인의 표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문맥으로 봐서, '솟아오르는 피'는 살인할 때의 감정을 나타내는 일본어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 미즈노는 A, B, C의 하단, 즉 「개조」판의 복자 부분에 연필로 복자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관하여 그의 생각을 써놓고 있는데, 제11행 째, 제12행 째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중략) 그리고, 조선어 번역의 제30행 째부터 제35행에 해당하는 「개조」판의 제32행 째부터 제38행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중략)
> 彼の脳天めがけて鎌をふり わきあがる血にぬく/ヽヽヽヽヽヽヽヽヽヽヽヽヽ/溫もりある復讐ヽヽの歡喜のなかに泣き笑へ

고 쓰고 있어, "「개조」판의 복자 부분에 연필로 복자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관한 그의 생각을 쓰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연필로 쓴 자료를 어떻게 신용할 수 있는가? 천황의 "뇌를 향하여 낫을 흔들고", 라는 표현은 잔혹한 살인의 표현으로 밖에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서도 무엇이 'ヽヽヽヽヽ(わきあがる)'인 것인지 명언(名言) 되어 있지 않다.

마쓰시타 유타카가 본 미즈노 나오키의 축어역(逐語訳)은, 아무리 봐도 '천황'을 죽이는 취향을 띠는 그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 마쓰시타 유타카는 "피를 뒤집어쓰고"로 밖에 번역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츠다 이쿠오는 "그러나, 미즈노 재일본어역이 전해졌을 무렵, 나카노 시게하루의 건강은 백내장, 심부전, 현기증 등으로 세세한 부분을 볼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나카노 시게하루가 세밀하게 보지 않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미즈노 재일본어역이 전해진 11월에는, 시집이 들어와 제1권은 이미 나와 있었고, 「사이토 모키치 노트(齋藤茂吉ノオト)」와 「무로 사이세이(室生犀星)」가 들어와 제17권, 「갑을병정」의 제7, 8권 이하의 편집에 나카노 시게하루는 쫓기고 있었다. 거기서, 나카노는 전집의 편집자인 마쓰시타 유타카에게, 「개조」판과 미즈노 번역을 대조해 보도록 하는 일을 맡긴 것일 것이다.

그 결과, 1977년 6월 24일에 간행된 "제8회 배본(配本)의 제3권에 끼어 들어가는「월보8」의「편집실로부터」(3월 10일, Y)"가 보이게 됐고, 마쓰시타 유타카의 "뒤집어 쓴 피"가 등장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 마쓰시타는 조선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조선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번역을 했을 리가 없다. 또한 마쓰시타에게 시작이 있다고 들은 적이 없다. 그 마쓰시타가, 잘못을 갖고 있던지 안 그러든지 (그것은, 그 때의 마쓰시타가 알리도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미즈노의 노작(勞作)을 이렇게 졸작으로 만들고, 그것이 시「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으로「복원」된 초기형(初期形)으로서 24년 간에 걸쳐서 유포되게 된 것이다. /「그의 가슴팍에 칼을 찌르고 / 피를 뒤집어쓰고」그런 풍으로 미즈노는 번역하고 있지 않다.

고 마쓰시타 유타카의 탓으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1976년 11월 23일, "마쓰오의 손으로부터 미즈노 재일본어역을 받아 3개월 후" 1977년 2월 22일, 나카노 시게하루는 마쓰오 다카요시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외에 소론 하나)의 조선어에 관한 것으로 도움을 받은 미즈노 나오키씨에게 전언을 부탁드리는 건으로 씁니다. / 저 조선어역은 직접원고 (최초의 것 즉 개조 발표로 복자가 된 원래의 것)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의 절차 등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 복자를 문자 그대로 일으킨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토대로 해서 산문 풍으로 쓰면, 조선으로부터 재차 돌아와 동해도(東海道)와 나고야(名古屋)를 거쳐서 동경으로 들어와, 천황을 붙잡고, 뭔가 낫과 같은 종류의 칼로, 턱 주위를 치켜세워 자르고, 따스한 피를 뒤집어쓰고 보복의 환희에 울고 웃어라 라는 풍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황을 붙잡고, 뭔가 낫과 같은 종류의 칼로, 턱 주위를 치켜세워 자르고, 따스한 피를 뒤집어쓰고 보복의 환희에 울고 웃어라"라고 나카노 시게하루가 쓰게 되었던 경위는,

> 마쓰시타에게 부탁하여 두었을 미즈노의 재일본어역과「개조」판 텍스트와 견주어 작업한 결과 기다린 것이 3개월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나카노는 제출된 마쓰시타

「복원」형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던 듯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미츠다 유키오의 언급은, 그대로 수용해도 좋지 않을까?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복자에 관한 논의 속에서, 졸고(拙稿)의 '따스함'에 관한 해석은, 공동연구 속에서 문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동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역(試訳)을 꾀하고 있다.

彼の身邊に肉迫し/彼の面前に現はれ/×(彼)を×(捕)獲し　彼の×(胸)倉をひつつかんで/彼の×(?)首正(まさ)しくそこに 鎌×(先)を突附け/滿身の奔(はし)る血に/熱い復×(讐)の歡喜中で/泣け! 笑へ!

"만신의 뛰는 피(滿身の奔(はし)る血)"라고 볼지라도, 무엇이 '흐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언(明言)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미즈노 나오키의 신자료에서 "鎌の×[刃?]を命中させ/滿身のわきあがる血に[滿身にとび散る血に]"는, 만신의 솟아오르는 피이던지 만신의 뒤집어쓰는 피이던지 간에 문맥상으로 봐서, 마쓰시타 유타카의 뒤집어쓰는 피의 의미와 거의 같은 것으로 '천황 암살'의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는 것이다. 마쓰시타 유타카의 뒤집어쓰는 피의 탓으로, 나카노 시게하루가 마쓰오 다카요시에게 '천황'을 낫으로 턱 주위를 치켜세워 자르고, 따스한 피를 뒤집어쓴다는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도, 제1차적으로 미즈노 나오키의 재일본어역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 감출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마지막 행의 '따스함'은 미즈노 나오키의 새로운 자료에서도, 37행과의 관련에서 봤을 때, 피의 '따스함'인 것을 연상케 하고 있는 것이다.

5. 나오며

"日本プロレタリアートの後だて前だて"는 "민족에고이즘의 꼬리"를 물고 있는 표현인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 국제연대의 표현인가가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민족에고이즘의 꼬리"로 보는 견해는 '방패'가 총알받이를 의미한다고 보는 데서 출

발한다.

「雨傘밧은『요꼬하마』의 埠頭」를 검토해 보면 시적화자와 주인공은 이성적 연인 사이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로서의 인간적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는 일제의 군국・자본주의의 횡포를 상징한다. '비'는 천황제의 핵심인 일본 천황의 백색테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에서 하나님은 너의 방패라고 하고 있듯이, 방패는 연대감의 상징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雨傘밧은『요꼬하마』의 埠頭」의 우산도 흔희 "내가 너의 우산이 되리라."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부두에서 우산은 자연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유일무이한 도구이다. 시적화자와 '異國의 계집애'는 서로의 우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임화는 "일본프롤레타리아의 뒷방패 앞방패"의 '방패'를, 제목에서 보이는 「雨傘밧은『요꼬하마』의 埠頭」의 '우산'으로 화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요꼬하마」의 계집애"에서의 사랑은 사회주의 휴머니즘이다. 사회주의의 이상은 부르조아의 착취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산다는 것을 말한다.

이별하는 조선인 동지에게 시적화자의 염원을 맡기고 있는데 비해, 「雨傘밧은『요꼬하마』의 埠頭」의 화자는 그 보다 한 단계를 더 생각하고 있다. 즉 다음 세대의 프롤레타리아 양성을 일본인 동지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종이우산이 찢어지면 "사랑의 주린幼年工"에게 쐬워줄 수가 없게 된다. 우산이 찢어진다는 것은 일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공격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신은주・조민숙・満田郁夫・林淑美(2001)「『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의 텍스트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논의에 대한 공동연구 (상)」『배꽃(梨の花)통신』, 나카노 시게하루 연구회, p.585

申銀珠(1997)「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와 한국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임화, 이북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日本研究』 12, pp.187~229

尹学準(1979)「中野重治の自己批判—朝鮮への姿勢について(中野重治—人とその全仕事 <特集>」『新日本文学』 34巻12号, pp.144~151

大村益夫編訳(1998)「<對譯>近代朝鮮詩選(10) 雨傘さす横浜埠頭」『季刊三千里』43, pp.229~234
中野重治(1975)「雨の降る品川駅のこと」『季刊三千里』2, p.14
日本聖書刊行会 編(1994)「創世記15・1」『聖書 新改訳』, 日本聖書刊行会
松下裕(1977)「編集室から」『(第二次)中野重治全集第九巻』「月報7」, 筑摩書房
水野直樹(1977)「『雨の降る品川駅』の朝鮮語訳をめぐって」『中野重治全集月報8』
_____(1980)「『雨の降る品川駅』の事実しらべ」(『季刊三千里』21, p.98

❖ 투고일 : 2006. 6. 30
❖ 심사일 : 2006. 7. 31
❖ 심사완료일 : 2006. 8. 11